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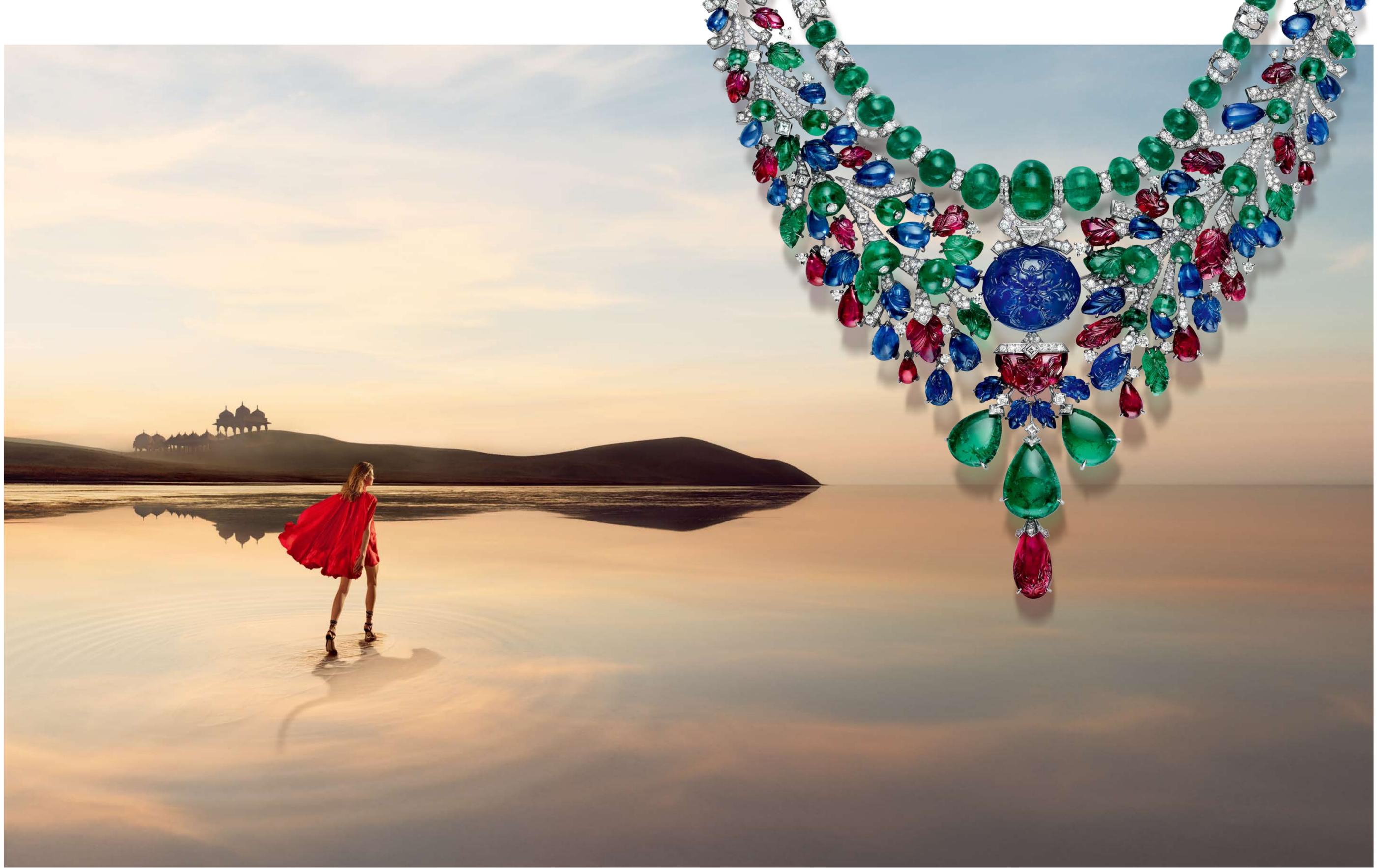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AUGUST 2023
vol.256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NOT MANY.



Cultural dialogues in the Cartier style

Cartier



SUBLIMAGE LA CRÈME

피부 활력과 송고한 광채를 깨우는 궁극의 스킨케어

샤넬의 독자적인 폴리프렉서닝 과정을 거쳐 탄생한 바닐라 플라니폴리아 성분은 최초 원료보다 40배 더 농축한 활성 분자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고귀한 성분을 함유한 새로운 수블리마지 포몰러는 피부에 활기를 되찾아주며, 건강하고 어려 보이는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 집중 작용 합니다. 더욱 아름답게 변화된 피부를 느껴보세요.

* 샤넬 연구소에서 정의한 지표. 피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분감, 피부 편안함, 주름, 탄탄한 피부, 균일함, 피부 강화, 광채

CHANEL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38

BIOCERAMIC
MOONSWATCH
COLLECTION

MISSION TO MERCURY



Ω
OMEGA
x
swatch+

Only available in selected Swatch Stores

BIOCERAMIC
MOONSWATCH
COLLECTION

MISSION TO VENUS



Ω
OMEGA
x
swatch+

Only available in selected Swatch Stores



바세른 콘스탄틴에서 페트리오니는 기술적 정교함과 미학적 새로움을 구현하는 컬렉션. 그라데이션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로 세련되고 미니멀한 미학을 선사하는 셀프 와인딩 모델을 선보인다. 상세한 디테일을 통해 매종의 워치메이킹 본질을 우아하게 해석한 시계라 할 수 있다. 문의 1877-4306



22

16

18

12

- 13 **SUMMER SPLENDOR** 반짝이는 스웻글과 화려한 비즈 디테일의 패션 아이템으로 완성하는 글램 서머 룩.
- 15 **BLACK CHIC** 강인함과 현대적인 시크함을 이끄는 블랙 다이얼 워치 7.
- 16 **WRITE YOUR OWN CHAPTER!**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에 둘러싸여 있다. 오늘날에도 차별이나 인종, 나이 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관념은 무수히 존재한다. 불과 1백 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여성 디자이너나 건축가가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이름을 남기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근대화의 빠른 물살 속에서도 편견을 딛고 자아실현을 한 선구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 18 **SPACE IN FOCUS** 이트 페어 브랜드 프리즈(Frieze)가 지난해 가을 서울에 입성하면서 해외의 크고 작은 갤러리가 진출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린다. 페어든 갤러리든 미술 자本是 상대적으로 빠져나가기 쉽다. 점을 늘려두어야 하지만, 새로운 공간과 콘텐츠의 출현은 도시를 더 다채롭게 물들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 오는 9월 초 예정된 프리즈 서울을 앞두고 저마다의 개성을 내세워 서울을 찾은 갤러리 공간을 소개한다.
- 19 **CODE WHITE**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여름을 더욱 돋보이게 할 컬러, 화이트.
- 20 **ODE TO LOVE**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시간을 위한 완벽한 페어 워치.
- 22 **ROMANTIC SCENES** 나와 내가 만나는 그녀는 때보다 더 로맨틱한 하루.
- 34 **THE ETERNAL NUMBER** 가브리엘 샤넬이 가장 사랑했던 숫자 5에서 영감을 받아 그 형태의 아름다움과 하우스의 대담한 정신을 담아낸 컬렉션 N°5를 소개한다.
- 38 **ETERNAL LOVE** 가장 순수한 반짝임으로 표현한 영원의 징표이자 사랑의 사인을 지키는 완벽한 수호자, 디자이너의 다이아몬드로 만든 브라이덜 컬렉션.
- 39 **PASSION OF INFINITY** 신념을 가진 자를 이길 방법은 없다. 자신의 직감을 바탕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며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컬렉션을 풀어내는 마르코 드 빈첸초(Marco de Vincenzo)가 이끄는 에트로(ETRO)의 네 번째 컬렉션이 열렸다.
- 40 **LOVELY WALK** 편안함에 소녀 감성과 트렌디함 한 스푼을 더한 발레리나 슈즈.
- 41 **THE EDGE OF SHADE** 뜨거운 태양에 맞서는 가장 스타일리시한 방법.
- 42 **COOL STEPS** 더욱 클하고 편안한 발걸음을 위한 서머 맨 슈즈.
- 43 **ENJOY YOUR FLIGHT** 간편한 휴대성과 빠른 호기로 비행 전후 혹은 항공기 내에서의 뷰티 케어를 도울 아이템.
- 44 **SCENT EFFECT** 한 번의 터치로 확실한 기분 전환 효과를 선사하는 향 섀클렉션.
- 45 **RED SOLUTION** 안티에이징의 첫 번째 솔루션이 되어줄 샤넬의 N°1 DE CHANEL 레드 케어라인이 세럼.
- 46 **EDITOR'S PICK** 더위에 무너지지 않는 메이크업을 원한다면 여기, 솔루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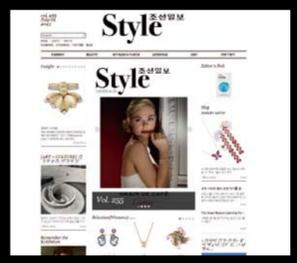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Issue.256 August 202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라온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경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산비 분해·재판 | 리은 인쇄 | 타워타워프레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0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당로 413 현대 하이패션 비즈나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포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Astonishing orange





1 핑카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전하는 아세이트 소재의 선글라스. 33만6천원 **플레렌 가바나 by 에실로르스타카**. 2 마카도 실크 소재의 아슬라, 아슬라 오버스카트 1천2백만원 **탐이트라 by 헤라티크뉴욕**. 3 18K 골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반트지 알함 브라 펜던트 5백만원 **반달리프 아멜**. 4 실크 트릴 소재의 슈 발로스코프 90cm 스카프 71만원 **에르메스**. 5 은은한 플로럴 향의 단상 블라썸. 100ml, 가격 미정 **루이비통**. 6 달콤한 과실 풍미를 선사하는 심포니 메종 세인트 마카르. 750ml, 30만대 **심포니 메종 세인트 마카르 by 페르노라카 코리아**. 7 총 0.88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케이스와 그린 칼라 말라카이트 소재 다이얼의 조합이 특징인 쟈 디올 타임피스 가격 미정 **디올 타임피스**. 8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라네타늄 소재의 슬라테어 1865 링 가격 미정 **가르다미에**. 9 마디오브릴리 말라카이트로 장식해 여성스러운 느낌을 부여하는 프라티우 언 브레이슬릿 3백20만원 **프라티우**. 10 총 0.4캐럿의 36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소재 포매투도 투게더 링 가격 미정 **포매투도**. 11 V자 모양 클로저가 특징인 카브 스킨 소재의 미니 벨라 백. 21X16cm, 2백만원 **대 에트로**. 12 총 0.67캐럿의 31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ETERNAL N5 0.1캐럿 1천7백30만원 **사셀 확인 주얼리**. 13 쿠어은 리본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세틴 소재의 나이트 아웃 펌프스 1백39만원 **발렌티노 가바나니**. 14 100% 알루미늄 소재로 견고함을 자랑하는 장거리 여행용 패킹 케이스. 28X52X77.5cm, 2백99만원 **투미**.

에실로르스타카 02-501-4436 헤라티크뉴욕 02-514-4010 반달리프 아멜 1877-4128 에르메스 02-542-6622 루이비통 02-3432-1854 페르노라카 코리아 02-3466-5700 디올 타임피스 02-3280-0104 가르다미에 1877-4326 프라티우 02-514-3721 포매투도 02-3143-9486 에트로 02-3446-1969 사셀 확인 주얼리 080-805-9628 발렌티노 가바나니 02-2015-4655 투미 02-539-8950

for her Selection

그 누구보다 눈부시고 사랑스러운 신부를 위한 브라이덜 컬렉션.
photographed by kim sa yun, oh hyun sang

Summer Splendor

반짝이는 스웱글과 화려한 비즈 디테일의 패션 아이템으로 완성하는 글램 서머룩.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수직접으로 완성된 세틴 소재의 오버사이즈 보 포인트의 활짝 넘치는 길리엄의 비즈기 돌로20는 비글 콜라워 보우 솔라베 3백20만원 **포지 바비에**. 문의 02-3479-6115. 허위스핀의 아이글-한 라페랑을 장식한 크리스탈이 무아이를 배가하며. 그라마 블루 컬러를 애용해 유. 단한 것을 선사하는 크리스탈 R 브로치 **오르비탈 로사스**. 문의 02-3449-5926. 나미 송이찌 가족 소재로 만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발독 스트랩이 안쪽을 다해준다. 신비 장리의 톱그란 디테일이 눈길을 사로잡는 열광 가격 미정 **미늘로 블라데**. 문의 02-3479-1989. 두께감이 있는 메탈 소재 카브에 스트라스를 첨가해 세팅해 심플하면서도 대담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오원형 방글 가격 미정 **사셀**. 문의 080-805-9628. 바이너로메트 스키퍼 비즈로 컷의 보링팅 스톤이 오묘한 매력을 선사하며 대담한 시어즈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큐리오사 카타일 링 55만원. 파스텔컬러 조합이 화려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플라네타늄이 특징인 쟈마 네르리스 63만원 **모두스 오로르보스카**. 문의 02-1522-9065. '발라몽'으로 마길 차용한 925 스텐링 심플한 디자인 실용 귀걸이로 차타르를 생생하게 세팅해 반짝임을 강조한 크리스탈 로고 오픈용 귀걸이 11백20만원 **프라티우**. 문의 02-3443-6047. 어여비리한 느낌을 주는 연꽃형 스와르보스키 크리스탈이 눈길을 사로잡으며. 활짝형 솔리드 링 제인 스트랩 및 앵글을 활용해 크리스탈 비즈, 솔라베, 핸드백으로 연출 가능한 앵글로이더로 6백 9백70만원 **발렌티노 가바나니**. 문의 02-2015-4655 **에디 용지정**

Black Chic

강인함과 현대적인 시크함을 아우르는 블랙 다이얼 워치 7.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1 시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블랙 메탈 소재의 선글라스 6825천원 **프라다 by 에실로룩스타카**, 2 코리아 인스클루시브 싱글브레스스 포츠코트 4백45만원, 코리아 인스클루시브 펜츠 1백15만원, 포플린 프렌츠 카프 텍사도 셔츠 1백5만원, 실크 새틴 보타이 25만5천원 모두 **밀프 로렌 퍼플 리벨**, 3 카본 피버 80%와 레더 20%로 재해 견고함을 자랑하는 글로벌 더블 알렛 32만원 **투미**, 4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벨 에포크 네크라스 가격 미정 **다이아니**, 5 3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LOVE 링 6백만원대 **까르띠에**, 6 18K 옐로 골드 소재의 노트 커프 링크스 가격 미정 **타파니**, 7 단정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실크 소재의 남성 타이 1백63만원 **에르메스**, 8 카본 스킨 소재의 V 로고 시그처 리버시블 벨트 76만원 **발렌타노 가리바니**, 9 직경 42mm 케이스에 60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것을 선호하는 DLC 티프늄 소재의 예스콜라버 42 1억 3천만원대 **로저드뷔**, 10 메탈 소재의 벨 메탈 인신스 버니 43만원 **구찌**, 11 블랙 대리석 케이스 자체로 훌륭한 오브제 역할을 하며 짙은 향이 특징인 레 부지 피파에 향초 파타미테오 300g, 21만5천원 **오피신 유니버설 불리**, 12 화이트 골드 포인트가 눈길을 사로잡는 파피텐트 레더 소재의 밋 그레고 1백40만원대 **크리스찬 루부탱**, 13 현대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포스텐 브라운 슬릿 2천만원대 **프라데**, 14 수납력이 좋아 트라블 세컨드 백으로 활용하기 제격인 테니 30X45X20cm, 35만9천원 **셀스나이트**.

에실로룩스타카 02-501-4436 밀프 로렌 퍼플 리벨 02-3438-6235 투미 02-539-8950 다이아니 02-515-1924 가리바니 1877-4326 타파니 02-6250-8620 에르메스 02-542-6622 발렌타노 가리바니 02-2015-4655 로저드뷔 02-3479-1403 구찌 02-3452-1521 오피신 유니버설 불리 031-688-5552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프라데 02-514-3721 셀스나이트 02-2007-2943

for him Selection

신사의 품격을 지닌 예비 신랑에게 어울리는 웨딩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sa yun, oh hyun sang



8 **발렌타노** 벨트 1백45만원, 9 **로저드뷔** 워치 1백45만원, 10 **구찌** 메달 15만원, 11 **부리** 향초 21만5천원, 12 **오피신 유니버설 불리** 신발 1백40만원, 13 **셀스나이트** 브라운 슬릿 2천만원, 14 **셀스나이트** 테니 35만9천원



(왼쪽부터 차례대로) **까르띠에** **산토스** 워치 1백45만원, **로저드뷔** 워치 1백45만원, **블랙 스퀘어** 워치 1백45만원, **에르메스** **칼라버** 워치 1백45만원, **로저드뷔** 워치 1백45만원, **에르메스** **칼라버** 워치 1백45만원, **에르메스** **칼라버** 워치 1백45만원

오메가 **비블 프레스티지** 워치 1백45만원, **에르메스** **칼라버** 워치 1백45만원

로저드뷔 **발렌트 에센셜** 총 1.65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1백 개를 세팅한 36mm의 핑크 골드 소재 케이스가 우아한 느낌을 자아내며, 블랙 다이얼과 조화를 이루는 블랙 옐로게이터 스텔라이 모던한 감성을 더한다. 22K 핑크 골드 진동추를 갖춘 오토매틱 RD630 칼라버로 구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9-1403

블랑팡 피프티 퍼센트 비바스프 43mm 스틸 케이스와 그레이 다이얼은 현대적면서도 남성적인 무드를 자아낸다. 1백2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수심 300m 방수 기능을 갖춘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라버에서 동력을 얻는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9-1833

IWC 피델리티 워터 크로노그래프 41 탭댄 블랙 세라믹 케이스에 다이얼과 리버 스트랩까지 울 블랙의 시크하고 묵직한 멋을 드러낸다. 직경은 41.9mm이며 시간, 분, 초 단위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추었다. 46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자기 장으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하는 연철 내부 케이스를 장착했다. 자체 제작 69380 칼라버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1천1백75만원, 문의 1670-7363

에거 르클레르 리베르스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블랙 스테이 다이얼과 45.6 x 27.4mm 핑크 골드 케이스 조합이 클래식한 매력을 발산한다. 42시간 파워 리저브와 30m 방수 기능을 제공하며, 매뉴얼 와인딩 에거 르클레르 칼리버 822로 구동한다. 3천2백90만원, 문의 1877-4201

브루게 레인드 네이플 8918 블랙 그랑 피 에-벨 장인들이 그랑 피 에-벨 7법으로 완성한 블랙 다이얼이 모던하고 세련된 기품을 선사한다.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베젤과 다이얼 플랜지에 세팅한 1백1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화려한 자태를 보여준다. 또 6시 방향의 약 0.06캐럿 페어 컷 다이아몬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5천1백38만원, 문의 02-3479-1008 에디터 **윤지경**

오메가 시계



지난 7월 중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개봉한 그레타 거윅 감독 연출의 영화 <바비>. 배우·감독·작가로 활약하는 팔색조 그레타 거윅의 국내 팬이 은근히 많은 데다 요즘 할리우드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배우 마고 로비, 케다가 <라라랜드>의 주연 배우 라이언 고슬링까지 합세한 터라 이목이 많이 쏠렸다. 여성이 원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상의 바비랜드와 남성이 지배하는 현실의 극단적인 설정을 바탕으로 성별 갈라치기 현상을 나름 재기 발달하게 하지만 '항마력' 달린다는 호소가 나올 만큼 오글거린다는 평도 많다) 일깨우면서 어디서 될 하든 스스로를 잃지 말고 자아 실현을 추구하자는 주제를 담고 있다. 거윅 감독 특유의 자유분방하고 특독 튀는 감성이 전혀 묻어나지 않은 건 아니다. 화면도 예쁘고 사운드(음악도) 준수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블록버스터를 노린 12세 관람가의 대중 영화라 그런지 내용만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이미 아는 메시지를 그다지 예지 있게 비틀거나 맞닿나게 바꾸리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역시 폭넓은 대중을 아우르는 재미와 작품성을 동시에 잡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이런 시도를 응원하고 싶은 이유는 마고 로비가 제작자로 나섰다든 배경 때문이다. 사실 마고 로비는 2014년부터 제작자 럭키챌 엔터테인먼트를 창립해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스크린에 담아내왔다. <바비>처럼 제작과 주연을 맡은 피겨 스케이팅 토냐 하딩의 이야기 <아이, 토냐>, 제작자뿐만 참여한 <프라이밍 영 우먼> 등이 럭키챌의 작품이다. 왜 이런 시나리오만 있냐고 비판만 일삼기보다 자신이 쓰고 싶은 얘기를 쓰고, 만들고 싶은 작품을 제작하는 그녀들에게 차가작을 지지하고 기다릴 것이다.

시스템 카친의 호시 프랑크푸르트 카친에서 비롯된 담론
현대사회에서는 적어도 교육 커리큘럼이나 사회제도 면에서 대놓고 차별을 가하는 풍경이 흔하지 않다. 물론 직업군이나

위계를 볼 때 성비 불균형은 존재하지만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성차별적 메시지를 주입하는 부모나 교육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외려 '잘난 여성'에 대한 환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 눈에 띈다. 그래서인지 <바비>에서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여성이라는 강박으로 생기는 '슈퍼 우먼' 증후군이라든가 다른 재주 없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주장적인 여성은 열등감을 느껴야 할 것 같은 고정관념(?)이 지적되는 장면이 더 많이 와닿는다. 빈약한 부익부의 양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평범에 머무르면 행복하기 힘들 것만 같은 현실의 분위기를 잘 말해주는 듯하다. 한 가지 현상이나 사물을 둘러싼 긍정적 인식이나 관점도 실은 또 다른 편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부산의 복합 문화 공간 F1963에 자리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에서는 디자인과 건축사에서 유의미한 주거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홈 스토리즈> 전시가 진행 중인데(오는 10월 1일 까지), 이 중 우리의 편견이 반영되었을지도 모르는 '프랑크푸르트 카친(1926~1927)을 선보이고 있다. 디자인계의 성지로 꼽히는 비트라 뮤지엄의 귀한 소장품으로 최소 면적에서 작업 동선을 집약적으로 설계해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시스템 부엌의 효시로 통하는 모델이다. 예컨대 가구가 차지하는 부분을 줄여 일의 효율을 높이고 부엌용품을 벽걸이 나 서랍형으로 보관하도록 규격화했고, 접이식 다림질판도 설치했다(근대부엌의 탄생과 이면). 특히 오스트리아 출신의 여성 디자이너 마가레테 슈테-리호츠키(Margarete Schütte-Lihotzky)의 디자인이라 여성이 여성의 편의를 도모했다는 식의 칭송 어린 평가를 받기도 해왔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일부 학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부엌은 어째서 여성성을 부여받는 것일까? 원래 그랬을까? 세상에 당연한 건 없듯 부엌이 마치 주로 여성의 공간인 듯한 인식은 언제, 왜 뿌리내린 걸까? <근대부엌의 탄생과 이면>의 도연정 저자는 움집의 중심이 모닥불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부엌의 여성성은 근대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불이 난방과 취사 역할을 담당했기에 부엌의 역사는 도구의 역사로 기록됐고,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는 부엌이 주거의 중심이자 가족이 함께하는 일터였는데,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어 공장 일꾼이 폭증하면서 노동의 분화가 이뤄지고 여성이 부엌일을 비롯한 가사를 맡게 됐다는 설명이다. 19세기 중반만 해도 서구에서 중산층 이상의 여성이라면 가사 노동은 하인에게 맡겼지만 점차 일부 상류층을 제외하면 비생산적으로 치부됐던 가사 노동이 여성의 업무로 규정됐고, 과학적 관리 열풍이 불면서 모듈화된 '시스템 부엌'도 등장하게 됐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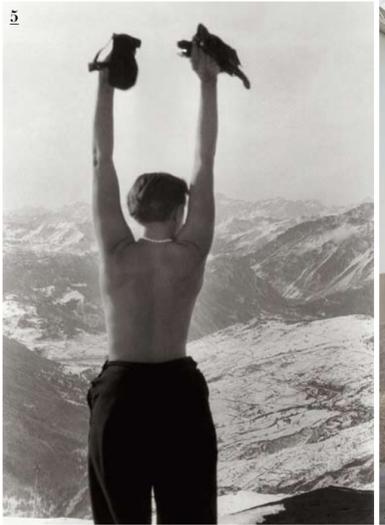
Write your own Chapter!

The Women Who Inspire Us_16 Design Thinkers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에 둘러싸여 있다. 오늘날에도 성별이나 인종, 나이 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관념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래도 일부 국가나 지역을 제외하면 제도적 차원의 억압은 별로 찾아볼 수 없지만, 불과 1백 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미국에서 여성 투표권이 인정된 것은 1920년이다. 뉴질랜드는 참정권에서 가장 앞선 나라였는데, 19세기 중반만 해도 재산이 있는 유럽 출신 남성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됐고, 여성 투표권을 적용한 선거는 1893년에야 치러졌다. 장벽을 거뒀다고 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기관으로 모더니즘의 산실인 독일 바우하우스가 1919년 개교했을 때 지원자는 의외로 여학생 84명, 남학생 79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초대 교장 발터 그로피우스는 여학생 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직조 공방 같은 제한된 영역으로 유도했다. 그렇다 보니 여성 디자이너나 건축가가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이름을 남기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근대화의 빠른 물살 속에서도 편견을 딛고 자아실현을 한 선구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이다. 디자인 자체의 업적은 차치하고, 부엌의 효율성이 여성의 가사 노동을 더욱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기계로 작동했다는 비판은 곱씹어볼 만한 설득력이 있다.

대륙을 넘어 창조적 역사를 쓴 건축가 리나 보 바르디
<홈 스토리즈> 전시장에서 향하는 입구에 통유리창 바깥의 경치를 감상하는 한 여성의 뒷모습을 담은 커다란 사진의 주인공은 또 다른 맥락에서 디자인 선구자의 길을 개척한 인물이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20세기 전반의 훌륭한 전쟁 시가를 겪으면서 브라질로 떠나 시민권자로 여생을 보낸 리나 보 바르디(Lina Bo Bardi)라는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생인 리나 보 바르디는 로마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는데, 건축기를 꿈꿨지만 여성이라는 제약, 무솔리니의 권력자 시절과 전쟁까지 거치며 좀처럼 건축 일을 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러다가 밀라노로 옮겨 저명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조 폰티와의 인연으로 디자인 잡지 <도무스>를 위시해 전문 출판 일을 왕성하게 하게 됐고, 평론가이자 컬렉터인 남편 피에트로 바르디를 만난다. 전쟁(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결혼으로 맺어진 이 커플은 모든 게 파괴된 이탈리아를 떠나 브라질로 향한다. 리우데자네이루에 정착한 바르디 부부는 자연의 생기와 따스한 정이 흐르는 현지 환경과 문화에 빠져들었다. 친유이 찾아왔는지 바르디 부부는 브라질의 사업자를 만나 이 지역 최대 미술관인 상파울루 미술관(MASP)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1947년 제단 설립, 1968년 개관). 리나가 설계를 맡은 이 미술관은 4개의 다리가 공중에 떠 있는 커다란 사각형 박스를 지지하는 듯한 형태로 가장 변화한 거리인 파울리스타 대로에 위치하는데, 지상 1층 공간을 많은 이들이 가로지르며 다닐 수



1 현대 모터스튜디오(MMS) 부산에서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과의 협업으로 진행 중인 <홈 스토리즈(Home Stories)> 전시회는 10월 1일까지(이제는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로 30대 초반인 1946년 남편과 함께 브라질로 이주해 여생을 보낸 리나 보 바르디(Lina Bo Bardi)의 바르디부터 천황까지 유리로 된 채트 카사 데 비드로(1951)의 축소 모형도 볼 수 있다. 집으로 향하는 계단부터 조경이 시작되어 한자의 토속 신물을 심어놓은 유리 중정까지 이어져 자연과 진정성 있는 교감 이 가능하다. 리나 보 바르디는 모든 디자인과 건축의 성원관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행보를 펼쳤다. 이미지 제공: HMS 부산 2~4 주방에서의 동선을 최적화하고 노동의 효율성을 높인 '시스템 카친'의 호시(로 통하는 마가레테 슈테-리호츠키(Margarete Schütte-Lihotzky)의 '프랑크푸르트 카친', HMS 부산에서 열리는 <홈 스토리즈>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다. 5 1930년대로 추정되는 사가(제 20대의 사블로트 페리앙 프랑스 출신의 디자이너)가 사블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이 설계한 파인 가옥으로 사람의 동에 지고 이동할 수 있는 유목 건축물 레퍼주 트보(Refuge Tonneau, 1938). photo by Stefano De Monte. 이미지 제공: Cassina 7 프랑스 남동부의 지중해 해안을 품은 로코브르-카프-마르방에 위치한 아일렌드 출신 디자이너 겸 건축가 이일렌 그레이(Eileen Gray)의 E-1027 빌라. 젊은 연인 장바도 비라피의 은신처로 삼을 바탕으로 3년 동안 설계와 인테리어를 거의 전담했다고 전해지며(1929년 완공), 모더니즘 건축의 수장으로 여겨진다. 건축가 겸 코르뷔지에가 이 빌라를 마음에 들어해 자주 드나드는 바람에 상당 기간에 걸쳐 그의 작품으로 오인받기도 했다. 빌라 뒤편 산기슭에 르 코르뷔지에의 13m(4층)의 오두막이 자리한다. 8 E-1027 빌라의 거실 인테리어. '캠핑 스타일'을 위한 이동형과 조립식 디자인을 기미했다. 창대 아래 놓인 E-1027 테이블은 놓낮이 조절 가능한 사이트 테이블로 지중도 스테디셀러다. 9 호주 스티디 중심가의 도메인 지구에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NSW 주립미술관의 확장 프로젝트로 자체 12월 초 문을 연 신관 건물, 일본 '스타가렛' 듀오가 이끄는 건축 스튜디오 SANAA가 맡았다.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라츠카상을 받은 SANAA의 세라미 거간은 건축 규격이 많은 일면에서도 드문 여성 건축가로 세태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다. 토끼 귀를 연상시키는 인형은 라빈 채어 등 그녀의 가구 디자인도 유명하다. * 2~4, 7~9 이미지 photo by 고성연



2 1세대 모터스튜디오(MMS) 부산에서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과의 협업으로 진행 중인 <홈 스토리즈(Home Stories)> 전시회는 10월 1일까지(이제는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로 30대 초반인 1946년 남편과 함께 브라질로 이주해 여생을 보낸 리나 보 바르디(Lina Bo Bardi)의 바르디부터 천황까지 유리로 된 채트 카사 데 비드로(1951)의 축소 모형도 볼 수 있다. 집으로 향하는 계단부터 조경이 시작되어 한자의 토속 신물을 심어놓은 유리 중정까지 이어져 자연과 진정성 있는 교감 이 가능하다. 리나 보 바르디는 모든 디자인과 건축의 성원관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행보를 펼쳤다. 이미지 제공: HMS 부산 2~4 주방에서의 동선을 최적화하고 노동의 효율성을 높인 '시스템 카친'의 호시(로 통하는 마가레테 슈테-리호츠키(Margarete Schütte-Lihotzky)의 '프랑크푸르트 카친', HMS 부산에서 열리는 <홈 스토리즈>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다. 5 1930년대로 추정되는 사가(제 20대의 사블로트 페리앙 프랑스 출신의 디자이너)가 사블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이 설계한 파인 가옥으로 사람의 동에 지고 이동할 수 있는 유목 건축물 레퍼주 트보(Refuge Tonneau, 1938). photo by Stefano De Monte. 이미지 제공: Cassina 7 프랑스 남동부의 지중해 해안을 품은 로코브르-카프-마르방에 위치한 아일렌드 출신 디자이너 겸 건축가 이일렌 그레이(Eileen Gray)의 E-1027 빌라. 젊은 연인 장바도 비라피의 은신처로 삼을 바탕으로 3년 동안 설계와 인테리어를 거의 전담했다고 전해지며(1929년 완공), 모더니즘 건축의 수장으로 여겨진다. 건축가 겸 코르뷔지에가 이 빌라를 마음에 들어해 자주 드나드는 바람에 상당 기간에 걸쳐 그의 작품으로 오인받기도 했다. 빌라 뒤편 산기슭에 르 코르뷔지에의 13m(4층)의 오두막이 자리한다. 8 E-1027 빌라의 거실 인테리어. '캠핑 스타일'을 위한 이동형과 조립식 디자인을 기미했다. 창대 아래 놓인 E-1027 테이블은 놓낮이 조절 가능한 사이트 테이블로 지중도 스테디셀러다. 9 호주 스티디 중심가의 도메인 지구에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NSW 주립미술관의 확장 프로젝트로 자체 12월 초 문을 연 신관 건물, 일본 '스타가렛' 듀오가 이끄는 건축 스튜디오 SANAA가 맡았다.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라츠카상을 받은 SANAA의 세라미 거간은 건축 규격이 많은 일면에서도 드문 여성 건축가로 세태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다. 토끼 귀를 연상시키는 인형은 라빈 채어 등 그녀의 가구 디자인도 유명하다. * 2~4, 7~9 이미지 photo by 고성연

창이 특징인 독특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의 시설로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는 재생 건축의 효험한 예로 알려져 있다.

시후에야 재대로 인정받은 2명의 모더니스트, 그리고...
리나 보 바르디는 외국인도 여성이라는 점에서 뒷세와 저평가도 겪었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운이 좋은 인물이었다. 유복하고 진취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덕분인지 그가 겪이지 않았고, 인생의 고비마다 귀인을 만났다. 70대에 들어서도 40대 시절보다 더 많은 일을 의뢰받았더니, 운과 실력도 작용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가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에 반해 어느 정도 동시대를 산 유럽 출신의 여성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과 아일렌 그레이(Eileen Gray)는 인생 후반기 또는 사후에야 제대로 된 평가와 대접을 받은 선구자들이다. 이들의 성장 배경이나 상황은 사뭇 달랐지만 근대 건축의 아버지로 통하는 르 코르뷔지에와 얽힌 인연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페리앙은 르 코르뷔지에의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그림자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다. 그레이는 연인과의 은신처로 직접 설계한 남프랑스의 E-1027 빌라(1929년 완공)가 르 코르뷔지에의 빌라 사부아(1931년 완공)에 앞서 근대 건축 5요

소를 아무렇게 담아내는 바람에 그의 질투를 샀다는 스토리가 나중이야 알려졌다. 비록 처음에는 실제 건축이나 디자인으로 많이 실현되지 못했지만 씩씩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장수를 누리면서(1903~1999) 꾸준히 스케치를 남긴 페리앙의 작품은 이제 가구 회사나 기관에서 '상품'이나 '건축 모형'으로 빛어내고 있고, 은둔형 기질의 소유자였던 그레이의 경우에는 몇몇 오리지널 빈티지가 경매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현재에도 생산된다. 저마다의 상황과 성향은 달랐지만 이들의 진짜배기 공통점은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자신을 잃지 않고 고유한 창의성을 나름의 방식으로 펼쳐냈다는 점이다. 원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숏선생해 영화로 만들어내는 21세기의 마고 로비처럼, 쿨하게 자신만의 챗터를 완성하며 20세기를 살아간 당당한 창조적 영혼들이다. 글 고성연



Space in Focus

기술자, 비즈니스맨, 문화산업 종사자 등으로 대표되는 '창조 계급(creative class)' 이론으로 유명한 도시 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도시의 성공 열쇠로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 소위 '3T'를 꼽는다. 그는 인종, 국적, 성적 취향, 문화적 배경 등에서 각양각색의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다양성'을 창조 도시 융성의 관건으로 강조했다. 나중에 다양성과 경제 발전을 연결하는 논리가 지나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혼중의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 서로 다른 관점이 부딪히고 어우러지는 '우연한 충돌의 작용으로 창조성이 꽃피우는 토대인 다양성의 역할 자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은 명실공히 메가 시티로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바깥세상의 개성과 장점이 뒤섞이는 다양성 차원의 관용에서 뒤쳐진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지구촌에 큰 변화를 몰고 온 팬데믹 이후의 풍경은 어떻게 될까? 적어도 미술계에서는 다양성이 커진 모양새다. 아트 페어 브랜드 프리즈(Frieze)가 지난해 가을 서울에 입성하면서 해외의 크고 작은 갤러리가 진출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린다. 페어든 갤러든 미술 자본은 상대적으로 빠져나가기 쉽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겠지만, 새로운 공간과 콘텐츠의 출현은 도시를 더 다채롭게 물들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 오는 9월 초 예정된 프리즈 서울을 앞두고 저마다의 개성을 내세워 서울을 찾은 갤러리 공간을 소개한다.

#화이트 큐브 서울(White Cube Seoul)

미술에 지갑을 여는 문화 소비자가 많아지고 상대적인 도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규모와 개성을 지닌 생태계 구성원의 진출이 증명해준다. 팬데믹 시기에 한국 미술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주목받지 못했던 아트 페어 브랜드인 프리즈가 지난해 서울에서 1회 행사를 열었고, 이를 전후해 내로라하는 갤러리들이 입성하거나 규모를 키우는 등 한층 한국 시장 투자에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냈다. 이렇듯 갈수록 갈수록 좁아지는 미술 시장이 더 이상 갈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간을 확장하고, 갤러리 페어링은 도산공원에 새 터전을 꾸렸으며, 터데우스 로프는 2021년 가을 첫 지점을 낸 뒤 얼마 전 다시금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메가 갤러리라 일컬어지는 화이트 큐브가 서울 상륙을 알렸다. 1993년 런던에서 출발한 화이트 큐브는 1990년대 세계 미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친 이른바 'Young British artists' 작가들(데이비드 하트, 트레이시 에민 등) 대표작으로 알려진 이름이다)로 도약하며 세계적인 갤러리로

자리매김했고 홍콩, 뉴욕 파리 등에 지점을 두고 있다. 아직까지는 갤러계의 최강 브랜드인 고갱스인을 위시해 허우자관왕스, 데이비드 즈워너 같은 강자들이 크게 각광받으면서 예전 명성만큼은 못하다는 평도 듣지만 안젤로 카퍼, 안토니 골리, 게오르크 바젤리츠, 트레 이시 에민, 안드레아스 가스키, 모나 하툼 등 쟁쟁한 작가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현대미술계의 가장 박사보 화백을 대표하는 전속 화랑 중 하나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아 새 신에 애쓰고 있어 서울 입성이 어느 정도 예견되기도 했다. 한국에는 지난해 프리즈 서울을 통해 첫선을 보였고, 오는 9월 초 프리즈 기간과 서울 도산대로에 자리 잡은 화이트 큐브 서울 지점에서 개관전을 열 예정이다. 호림아트센터 1층에 300㎡(약 91평) 남짓한 면적으로 전시 공간, 프라이빗 뷰잉 룸, 오피스 등을 꾸리려 한다.

주소 서울시 도산로45길 6 호림아트센터 건물 홈페이지 www.whitecub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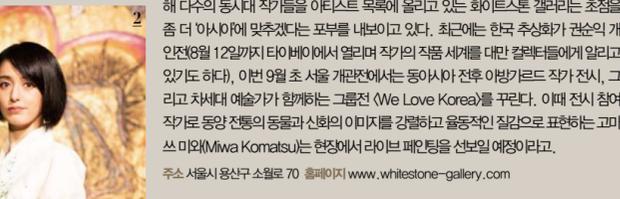


1 2012년 문을 연, 날찍하고 시원한 구조가 돋보이는 런던의 화이트 큐브 버몬디(Bermondsey). 원래 창고로 쓰던 건물을 고쳐 만든 이 갤러리는 당시 유럽 상업 화랑 최대 규모인 5,000㎡(약 1천5백 평)가 훌쩍 넘는 미술관급 규모로 유명세를 알렸다. 화이트 큐브 최초의 갤러리는 창안자 데이비드 조울링이 1993년 듀크 스트리트에 위치한 작은 공간에서 출발했다. 2 지난해 초기를 프리즈 서울의 화이트 큐브 부스 모습. 박사보 작가(왼쪽), 시아스터 게이츠(Theaster Gates, 가운데), 게오르크 바젤리츠(Georg Baselitz, 오른쪽)의 작품이 보인다. ※ 1, 2 photo by 고성진 3 오는 9월 오피스를 앞둔 화이트 큐브 서울이 들어설 호림아트센터 건물 외관. 서울 지점은 양진희 디렉터가 이끌 예정이다. © Courtesy White Cube



#화이트스톤(Whitestone) 갤러리 서울

빈세기가 훌쩍 넘는 아역을 지닌 화이트스톤 갤러리는 아시아 지역 곳곳에 지점을 둔 대형 갤러리다. 1967년 도쿄에서 시작해 홍콩, 타이베이, 싱가포르, 베이징 등으로 편을 끼웠고, 프리즈 서울 개최 시기에 맞춰 오는 9월 초 아시아 일곱 번째 지점을 서울 남산에 연다. 시장조사부터 장소 선정까지 오랜 기간 공을 들였고, 그렇게 서울을 경차 품은 남산 인근에 언뜻 인상적인 디자인이 눈에 띄는 공간을 낙점했다. 미니멀한 디자인의 검은색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총 700㎡(약 2백12평) 규모로 3개의 주요 전시장을 품고 있고, 조각 작품을 설치하는 등 다양으로 쓰일 수 있는 루프톱도 갖췄다. 갤러리 인터리어 디자인은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왕성한 창조력을 펼쳐 하고 있는 구마 겐고가 맡았기에 공간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아방가르드 그룹인 구타이 작가들을 비롯



1 해 다수의 동시대 작가들을 이티스트 목록에 올리고 있는 화이트스톤 갤러리는 초점을 좀 더 아시아에 맞추겠다는 포부를 내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추상화가 권순의 개인전(8월 12일까지 타이베이에서 열리며 작가의 작품 세계를 대안 칼럼니스트에게 알리고 있다고 하다), 이번 9월 초 서울 개관전에서는 동아시아 전후 아방가르드 작가 전시, 그리고 차세대 예술가가 함께하는 그룹전 《We Love Korea》를 꾸린다. 이때 전시 참여 작가로 동양 전통의 동물과 신화의 이미지를 강렬하고 율동적인 질감으로 표현하는 고마쓰 미와(Miwa Komatsu)는 현장에서 리아브 페인팅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주소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70 홈페이지 www.whitestone-gallery.com

1 서울 남산 근처에 자리 잡은 화이트스톤 갤러리의 외관. 갤러리 인터리어를 일본의 스타 건축가 중 한 명인 구마 겐고가 맡아 기틀을 모으고 있다. ©Kengo Kuma and Associates 2 9월 초 프리즈 서울 개최 시기에 맞춰 열릴 갤러리의 첫 전시 《We Love Korea》는 기획한 권순의, 이진시에 참가할 고마쓰 미와(Miwa Komatsu)는 리아브 페인팅을 선보일 예정이다. 동양 전통의 동물과 신화의 이미지를 강렬하고 율동적인 질감으로 표현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Komatsu Miwa Studio

#에프레미디스(Efremidis) 서울

서울 강남 선정릉역 사거리에서 멀지 않은 골목길에 자리한 이렇듯 건물 1층에 자리한 99㎡(30평) 남짓한 전시 공간. 전 세계에서 열정 가득한 아티스트들이 모여드는 활기 넘치는 도시인 독일 베를린에서 2018년 문을 연 에프레미디스 서울 지점이 들어선 공간이다. 베를린을 기반으로 하는 작가뿐 아니라 다양한 다국적 작가와 협업하고 있는 갤러리인 에프레미디스는 지난 5월 그 같은 다채롭고 역동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6인 그룹전 《전환(Tapetenwechsel)》으로 개관전을 치렀다. 규모가 작은 전시지만 사이고 아트 인스티튜트 교수이자 큐레이터, 비평가로도 활약 중인 미술 그래픽의 대형 회화 작품을 비롯해 저마다의 개성과 실험성이 돋보이는 구성이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또 다른 6인의 작품을 내세운 그룹전 《No Remedy for Memory》를 열어 고유한 갤러리의 색채를 거듭 소개했다. 시류에만 맞추는 상업성이 다분하거나 화제성 덕분에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작품보다는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나갈 동시대 작가들을 일컫는다는 목표를 둔 갤러리가 전시 작품을 꼼꼼히 노려본 아주 작은 미술관이나 베를린의 아트 랩에 온 느낌을 주는 듯한 작업 세계가 차츰 흥미롭게 외溢한다. 에프레미디스는 특이하게도 그리스 출신의 스타브로스 에프레미디스(Stavros Efremidis) 대표와 한국 출신 우승웅(Tom Woo) 대표가 손잡고 만든 갤러리다. 미술 시장에 뛰어들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프리즈 런던, 파리, 아트 쉐어 등 세계적인 아트 페어에 참가하며 입지를 다졌고 한국에서도 카이파와 아트부스를 통해 칼레타들과 만난 이력이 있다. 특히 지난해 우수한 작가의 개인전을 독일에서 여는 등 한국 작가에의 관심도 키워 가고 있다. 오는 9월 프리즈 서울 기간에는 아우라 로젠버그의 개인전을 열 예정이다. 글 고성진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37 홈페이지 https://efremidis.com

1 베를린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젊은 작가 아서 레이들러(Arthur Laidlaw)의 강렬한 붉은 타와 색감, 율동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회화 작품. 독일 베를린 기반의 갤러리인 에프레미디스 서울 지점의 첫 전시(지난 5월)로 기획된 6인 그룹전 《전환(Tapetenwechsel)》에도 포함됐으며, 8월 4일 열리는 2인전의 작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2 에프레미디스 서울의 두 번째 전시로 6월 30일 시작해 7월 말에 막을 내린 또 다른 6인 그룹전 《No Remedy for Memory》에서 선보였던 작가 그라비에 로블레스 데 메디나(Xavier Robles de Medina)의 작품들. 백면의 왼쪽 작품은 Rajjo Taiso(Isticly), 2018, Graphite on coloured paper 26 x 20cm, 오른쪽 작품은 'Cult Value', 2019, Graphite and plaster, 38.5 x 30 x 11cm 3 서울 강남 선정릉역 근처 건물 1층에 자리한 에프레미디스 서울. ※ 1~3 photo by 고성진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은은한 컬러 렌즈와 프레임에 V 로고 디테일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제시한다. 아서레이들러의 V-UNO 선글라스 1백만원 **발렌타노**, 문의 02-2015-4655. 다채로운 힐 디자인과 상반되는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크롬메드 페타트럼 램 스킨 소재의 신발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chanel.com. 클래식한 무드를 선사하는 스카어 디자인에 더블 G 엠블럼을 다룬 화이트 레더 소재의 밴디 GG 스물 솔더백 3백70만원 **구찌**, 문의 02-3452-1521. 인감을 램 스킨 소재로 완성하고 신축성 있는 스트랩을 장착해 인공적으로 부드러운 착용감을 부여하는 세이디 솔라백 핑크스 1백60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유려한 곡선 디자인과 시그니처 포 링 핸들이 특징인 100% 카프 스킨 가죽 소재의 주얼 호보백 4백10만원에 **일렉시드 맥퀸**, 문의 02-6105-2226. 신물한 포인트가 되어주는 로고기 눈길을 끌며, 스트로 소재로 재해체 투기성이 뛰어난 리파이 핏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3218-5331에디터 **윤지영**

Code White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여름을 더욱 돋보이게 할 컬러, 화이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이슈에 선정

Ode to Love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시간을 위한 완벽한 페어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에제리 문 페이즈** 지름 37mm의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 가장자리에는 58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다이얼 안 18K 5N 핑크 골드 소재의 링에 36개 다이아몬드를 정밀하게 세팅해 유려하고 화려한 멋을 뽐내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돋보인다. 총 1,107캐럿. 단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멋을 더하는 마더오브펄로 제작한 구름 아래 골드 달로 장식한 문페이즈는 이 워치의 관전 포인트. 메시 타입의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은 피부감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1088L 칼리버로 구동한다. **오버시즈 크로노그래프** 오버시즈 컬렉션의 아이코닉한 블루 라커 다이얼과 18K 5N 핑크 골드 소재의 조화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선사한다. 직경 42.5mm 케이스 안 날짜 표시창, 크로노그래프 카운터가 돋보이며, 말레 크로스 모양의 스크루로 장식한 칼럼 휠과 916/1000 골드 로터가 특징인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5200으로 구동한다. 또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브레이슬릿과 스트랩을 함께 제공해 높은 활용도가 돋보인다. 모두 가격 미정. 문의 1877-4306

(왼쪽부터) **오버시즈 크로노그래프** 스포티하고 세련된 멋을 선사하는 투톤 컬러의 심플함이 돋보이는 워치. 흑백 대비 효과의 팬더 스타일 디자인은 높은 가독성을 자랑한다. 또 실버 톤의 산버스트 세팅 피니싱 기법으로 완성한 다이얼에 스내일 블랙 카운터, 블랙 뱀뱀 마감 플랜지, 18K 화이트 골드 아워 마커, 시간, 분, 초, 슈퍼루미노바로 코팅한 카운터 핸즈의 조화가 긴밀한 멋을 지어낸다. 케이스 직경은 42.5mm이며, 셀프 와인딩 칼리버 5200으로 구동한다. 도구 없이도 스틸 브레이슬릿, 카프 스킨 리더 또는 블랙 라바 스트랩으로 교체 가능하다. **오버시즈 셀프 와인딩** 직경 35mm의 스틸 케이스가 핑크 컬러 다이얼을 만나 유아함을 배가한다. 베젤에는 90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했고, 3시 방향에는 날짜 표시창을 탑재했다. 화이트 골드로 제작한 아워 및 미닛 핸즈와 아워 마커에는 슈퍼루미노바 인레이를 적용해 어두운 밤에도 탁월한 가독성을 자랑한다. 40시간 파워 리저브를 갖춘 칼리버 1088/1을 장착했고, 사피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으로는 오버시즈 컬렉션을 상징하는 윈드 로즈 문양으로 장식한 22K 골드 로터를 감상할 수 있다. 모두 가격 미정. 문의 1877-4306 **에더 윤자경**

플라티넘 소재에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를 플러워 형태로 세팅한 티파니 빅토리아 이어링, 같은 빅토리아 컬렉션의 티파니 빅토리아 핀던트, 플라티넘 소재에 총 1.01캐럿 오벌 세이프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총 0.28캐럿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42개로 완성된 화려함을 부여한 티파니 솔리스트 오벌 헤일로 워딩 링, 함께 매치한 가스 링은 우아함을 더욱 높여주는 다이아몬드와 플라티넘 소재의 티파니 솔리스트 브이 밴드 링, 플라티넘 밴드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꽃 사를 세팅한 티파니 포에버 밴드 링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우부터 차례대로) 플라티넘 무드를 선사하는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마누 링 가격 미정 **다이아니**, 아름다운 화관이 떠오르는 디자인이 특징인 총 1.23캐럿 17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플로레드 링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허니콤의 육각형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17개의 인베터트라스 컷 다이아몬드를 중앙에 세팅하고 양옆에 총 0.23캐럿의 인베터트라스 컷 다이아몬드 2개를 세팅한 비마이 러브 솔리테어 링 6천만원대 **쇼베**,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한 밴드가 센터 스톤을 감싸고 있는 디자인이 유니크함을 선사하는 아모르 포유 인게이지먼트 링 1천2백33만원 **프라이드**, 총 2.01캐럿의 에메랄드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돋보이는 광채를 선사하는 플라티넘 소재의 링 가격 미정 **그라프**.

romantic scenes

너와 내가 만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로맨틱한 하루.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우부터 차례대로) 센터 스톤인 다이아몬드와 기워질수록 잎아지는 인베터트라스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한 플라티넘 소재의 파이페레 솔리테어 피베 링 가격 미정 **타사키**, 0.52캐럿 다이아몬드를 메인으로 주변에 총 0.41캐럿의 66개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한 플라티넘 소재 브리아딜 컬렉션 K88 링 가격 미정 **블로프**.

(우부터 시계 방향으) 연결이라는 모티브를 담은 브리지 링크가 특징인 총 0.06캐럿의 7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라임 에버데이스 링, 총 0.06캐럿의 7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골드 소재의 라임 에버데이스 링 모두 5백만원대 **소매**, 총 0.25캐럿의 81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래쉬 1천2백80만원, 클링 모티브의 디자인을 담은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크래쉬 1천2백50만원 모두 **시계 화인 주얼리**, 스톤의 단층과 같은 실루엣이 시곗바늘을 장식하는 총 0.22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 소재의 짐 디올 브레이슬릿, 총 0.22캐럿의 화이트 골드 소재 짐 디올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다들 주얼리**, 총 0.08캐럿의 7개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상세하게 세팅한 플라타늄 소재의 우유르 시그니처 에드왈 웨딩 밴드 3백만원대, 총 0.08캐럿의 7개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우유르 시그니처 에드왈 웨딩 밴드 2백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오른쪽 우부터 차례대로) 각진 앰을 조각을 모티브로 도시적인 무드를 전하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아이스 큐브 링 2백40만원, 사각형 디자인에 각각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아이스 큐브 링 7백34만원 모두 **소파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티파니 락 다이아몬드 액센트 밴글, 밴글의 반쪽을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로 정교하게 파베 세팅한 티파니 락 하프 파베 다이아몬드 밴글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총 1.41캐럿의 1백27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포제션 링 2천1백만원대, 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심플한 느낌을 전하는 포제션 웨딩 링 3백만원대 모두 **파이에**.



(남자) 가벼운 유플린 소재 블랙 DNA 서츠 가격 미정 **루이비통**, 그레이 컬러 올밴츠 가격 미정 **디올 맨**, 18K 화이트 골드 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제션 오픈 밴글 브레이슬릿 9백만원대 **파이에**, 로즈 골드 세르펜티 바이퍼 1코일 브레이슬릿 8백60만원 **블가리**, 핑크 골드 자스트 앵글루 브레이슬릿 1천1백만원대, 네 번째 손가락에 매치한 핑크 골드 자스트 앵글루 링 3백만원대 모두 **가르디에**, (여자) 튜브 톱스타일 드레스 가격 미정 **라워 호드 by 소우 브라이디**, 화이트 골드 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자스트 앵글루 네크리스 6백만원대, 핑크 골드 에 총 0.4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53개를 세팅한 자스트 앵글루 링 3백만원대 모두 **가르디에**, 화이트 골드 에 0.38캐럿 다이아몬드를 다한 벨 에포크 릴 화이트 골드 연 다이아몬드 링 가격 미정 **다이아니**, 핑크 골드 밴드 앵글 에 총 0.38캐럿의 30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제션 오픈 밴글 브레이슬릿 9백만원대 **파이에**, 진드 골드 스물 사이즈 자스트 앵글루 브레이슬릿 5백만원대 **가르디에**, 화이트 골드 아이스 큐브 밴글 7백28만원 **소파드**, 모델 오른쪽에 매치한 로즈 골드 세르펜티 바이퍼 1코일 브레이슬릿 1천2백60만원 **블가리**.

실카한 소재와 흐르는 듯한 실루엣의 백리스 드레스
 가격 미정 **다-벨 프랑델 by 에르메르뉴욕**, 화이트
 골드 소재의 뭇 모티브 밴드에 총 0.47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53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한 자스트
 영 꿀루 링 **영백인원대**, 뭇 모티브의 18K 화이트 골드
 펜던트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자스트 영
 꿀루 네크리스 **영백인원대** 모두 **카르띠에**, 우아한 매들
 형태의 18K 화이트 골드 펜던트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노트 다이아몬드 펜던트
 가격 미정 **티파니**, 빅 클라워 형태의 로돌 도금 18K
 화이트 골드 총 2.477캐럿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1백17개를 세팅한 프라불 클림 펜던트 엑스트라 라지
 모델 4천3백30만원 **반클리프 아펠**.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총 5.39캐럿의 5백28개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해 독보적인 우아함을 선사하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이오션 화이트 & 다이아몬드
 에그 드롭 이어링 가격 미정 **파베르제**, 섬세하게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울주양에 따라 더욱 빛나는 광채를 선사하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미모사 플렉시 네크리스 가격 미정
다이아나, 두 줄로 레이어드한 하트 모티브가 사랑스러움을
 배가하는 총 2.23캐럿의 27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골드 소재의 다이아몬드 링
 1천7백27만원 **스파드**, 르네상스의 여가사 브라다민테에서
 영감받은 대담한 디자인이 눈길을 끌며 총 1.48캐럿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브라다민테 링 3천8백만원대 **부엘라티**,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로즈 디자인이 특징인 0.62캐럿의 75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파이제 로즈 링 1천4백만원대 **파이제**.



(왼쪽부터 차례대로) 빗방울의 형태에서 영감받아
 우아한 매력을 전하는 6개의 패어 컷 다이아몬드와
 1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플뤼 드 까르띠에 가격 미정
까르띠에, 패어·마카즈·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다채롭게 세팅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티파니 빈토리야 믹스드 클러스터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티파니**.



(남자) 핀스트라이프 모폴린 셔츠, 울 재킷과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토**, 라운드 베젤을 장착한 지름 42mm, 두께 6.5mm 곡선형 케이스에 자체 제작 1200S1 기계식 셀프 와인딩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장착한 풀로 스켈레톤 워치 4천5백80만원 **피아제**, (여자) 새틴 느낌의 튜브 톱 스타일 워딩드레스 가격 미정 **리히 호드 by 소우 브라이덜**, 지름 36mm 스틸 케이스에 71세 장식의 블루 다이얼이 매력적이며, 총 0.07캐럿의 36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인테스로 우아함을 자아내는 자체 제작 500P1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풀로 데이트 워치 2천20만원 **피아제**.



(남자) 트윌 에타카스 싱글브레스트 수트 재킷 7백20만원, 비스코스 실크 토일 슬림 핏 셔츠 1백40만원 모두 **폴 포드**, 18K 핑크 골드 소재의 저스트 앵글루 링 3백만원대 **카르띠에**, 지름 41mm 스틸 소재 케이스에 아이코닉한 블루 래커 다이얼이 시선을 사로잡고, 인하우스 칼리버 2460 R31L/2로 구동하는 오버사이즈 문페이즈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6천5백50만원 **비세몬 콘스탄틴**, (여자) 옐로 골드에 총 0.4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53개를 세팅한 저스트 앵글루 링 8백만원대 **카르띠에**, 지름 34.5mm 스틸 소재 케이스에 산바스트 블루 다이얼로 포인트를 주고, 정밀한 칼리버 1088/1로 구동하는 오버사이즈 셀프 와인딩 가격 미정 **비세몬 콘스탄틴**.

(남자) 만과 폴라에스터, 실크 혼방의 이탈리아 메이트 트윌 에타카스 싱글브레스트 수트 7백20만원, 비스코스 실크 토일 슬림 핏 셔츠 1백40만원, 수트와 같은 컬러의 솔라 새틴 타이 32만원 모두 **폴 포드**, 지름 38mm의 스틸 케이스에 매력적인 그래픽이선 블루 다이얼과 스카이 블루 컬러 인테스를 매치한 모던하면서 캐주얼한 스타일의 씨마스터 이루어 타라 150M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9백만원대 **오메가**, (여자) 꽃과 비즈를 섬세하게 수놓은 슬리브리스 드레스 **매콤 마이드 by 아틀리에루**, 지름 34mm 스틸 케이스에 은은한 핑크 컬러 다이얼을 매치한 씨마스터 이루어 타라 150M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9백만원대 **오메가**.



원 스타일의 블랙 드레스 가려 미정 **발르 로렌 칼렉션**. 18K 옐로 골드에 총 0.53캐럿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31개를 세팅한 베를리 다이아몬드 링 1천1백40만원대, 경쾌한 감성을 더하는 핑크 골드 소재 베를리 비즈에 총 0.19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16개로 클로버 모티브를 더한 베를리 클로버 핀던트 7백50만원대, 지름 23mm 18K 옐로 골드 케이스에 비즈로 장식한 18K 옐로 골드 베젤을 매치하고 기묘세 오닉스 다이얼과 블랙 얼라기터 스트랩으로 시크한 감성을 더한 베를리 워치 1천3백50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예종의 아이코닉한 자물쇠 모양이 유니크함을 전하며, 총 2백21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골드 소재의 켈리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워치**. 직경 36.5mm 핑크 골드 소재 케이스에 72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전하는 패트리샤 셀프 와인딩 5천5백50만원 **바세론 콘스탄틴**. 하우스의 시그니처 타임피스로 핑크 골드 소재가 여성미를 배가한다. 뒷면으로 돌리면 두 줄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우아한 블랙 다이얼의 눈부신 조화를 감상할 수 있다. 예기 르클레르 칼리버 844로 구동한다. 라베르소 클래식 스틸 듀얼트 가격 미정 **에기 르클레르**. 총 1,777캐럿의 1백 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36mm 핑크 골드 케이스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다이얼을 화이트 자개로 완성했다. 4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오토매틱 RD821 칼리버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발벳** 주얼리 가격 미정 **로저드워**.



캐시미어 소재 그레이 니트 톱 2백20만원, 플라워 자수로 브러시업 느낌을 부여하는 플리워 양브로이더리 스카프 1천3백90만원 모두 **프라다**. (위부터) 지름 33mm 케이스에 52개, 총 1.24캐럿 다이아몬드를 베젤에 세팅해 화려함을 더하고 다이얼에 총 0.257캐럿의 5개 무빙 다이아몬드 매치해 특유의 아이코닉한 매력을 지니는 해피 스포츠 워치 2천5백58만원 **소피드**. 지름 33.2mm 레드 골드 케이스 베젤에 다이아몬드 세팅을 더해 우아함을 지니는 빌라레 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즈 2천5백만원대 **블링빙**. 지름 36mm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기묘세 장식의 화이트 오말 칼리 다이얼을 매치하고 약 0.077캐럿의 총 36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약 0.977캐럿의 6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인텍스와 베젤에 세팅한 플로 데이트 워치 7천2백만원 **피아제**.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랜드 고유의 일렉트릭 블루 컬러 다이얼이 특별한 신사한다.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약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스피드 03.05-C 셀프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알파인 이글 XL 크로노 3천1백6만원 **스피드**, 직경 40mm 스틸 미스 스틸 케이스가 모던한 감성을 견뎌, 3시 방향에 날짜창을 장착한 실용적인 다이얼이 돋보인다. 10Bar 수압에도 견딜 수 있는 기능과 1백20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오토매틱 셀프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인제-이 오토매틱 40 1천4백90만원 **IWC**, 43mm 스틸 케이스와 블루 다이얼이 특징으로 1만5천 기우스 이상의 자기장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탁월한 항자성을 입증받은 마스터 크로노미터를 장착했으며,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오메가 8938을 탑재했다. 스피드스터 아쿠아 테라 150M 코-엑시집 마스터 크로노미터 GMT 월드타이머 43MM 1천4백만원대 **오메가**.



(위부터 차례대로) 도회적인 느낌을 지어내는 스틸 케이스와 카본섬 컷블루 합성 스파클 1개를 세팅한 비즈 스틸 크라운의 조합이 돋보이며, 실버 색인 파나싱 태깅 광성 모터는 다이얼이 심플하고 모던한 무드를 배가한다. 430 MC 칼라버로 구동한다. 산토스 듀얼 타임인원대 **카르띠에**, 47X28.3mm 직사각형 스틸 케이스가 워치 하우스만의 시크함과 멋을 드러낸다. 낮과 밤 인디케이터를 정확히 높은 실용성을 갖췄으며, 예가 르클트르 칼라버 854A/2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가격 미정 **에거 르클트르**, 43.6mm 세라믹 케이스와 블루 다이얼의 하모니가 단정하면서도 강인한 남성미를 선사한다. 300m 방수 기능과 1백2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하는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피프티 패덤즈 버티스카프 1천7백만원대 **블랑팡**.

GG 로고 패턴이 개성 있는 록 연출을 돕는 카멜 에보니 샤머 GG 수프림 포털 아카이브 재킷, 여유 있는 알자핏의 카멜 에보니 샤머 GG 수프림 아리아 팬츠, 포인트 칼라 디테일의 세밀 GG 실크 크레이프 캐주얼 스카프 셔츠, 블랙 칼라의 캐디 타이 모두 기성 맞춤 **구찌**, 지름 42.5mm의 950 플래티넘 소재 케이스에 새겨진 컬러 다이얼을 매치해 우아한 품격을 자랑한다. 미니멀한 디자인에 흔하지 않은 레트로그라운드 컴플리케이션 조항이 돋보이는 패트리오니 레트로그라운드 데이-데이트 9천2백만원 **바세론 콘스탄틴**.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서아름
모델 Snizhan KW AGENCY),
Salih(JS AGENCY),
어시스턴트 신정림
에디터 상정민, 윤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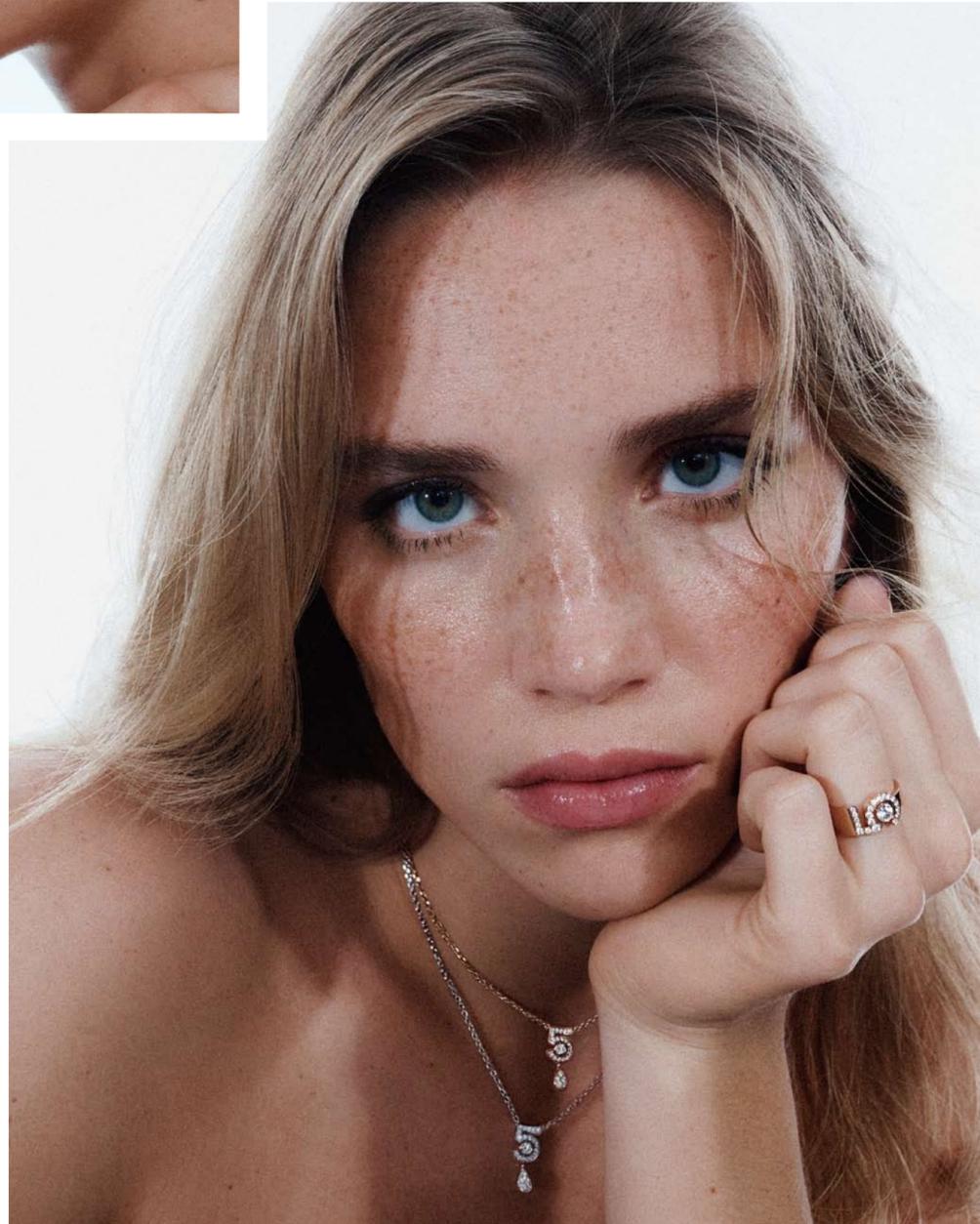
타파니 02-6250-8620
소유 브라이언 02-541-7077
해리태크닉 02-514-4010
루이 비통 02-3432-1854
다울 맨 02-3280-0104
카르띠에 1877-4326
피아제 1668-1874
볼가리 02-2056-0170
디미아니 02-515-1924
타사키 02-3461-5558
폴로프 02-3442-4706
프레드 02-514-3721
반들리프 아펠 1877-4128
소메 02-3442-3359
사벨 화인 주얼리 080-805-9628
다울 파인주얼리 02-3280-0104
그라프 02-2256-6810
오메가 02-6905-3301
로저트워치 02-3479-1403
롤 포드 02-6905-3534
아틀리에쿠 02-517-3889
보태가 베네타 1577-8841
바세론 콘스탄틴 1877-4306
말프 로진 컬렉션 02-3467-6560
블링광 02-3479-1833
스피드 02-6905-3390
구찌 02-3452-1521
파페르제 02-3442-4706
부샬로네 02-6905-3490
에르메스 워치 02-542-6622
프리다 02-3442-1830
에거 르클트르 1877-4201
IWC 02-3440-5876

총 2.23캐럿의 72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변형 가능한 ETERNAL N5 01earring, 중앙에 0.25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숫자 5 진주를 총 0.20캐럿의 19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정교하게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ETERNAL N5 ring.



화려한 무드를 선사하는 로브를 길게 늘어뜨린 0.1캐럿으로 착용하거나 심플하게 이어 스타드 타입으로 연출 가능하며, 총 2.23캐럿의 72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ETERNAL N5 01earring.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무드가 특징인 18K 베이지 골드 소재에 0.25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센터 스톤으로 세팅하고 총 0.21캐럿의 19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ETERNAL N5 ring, 차분하고 우아한 느낌을 선사하는 총 0.38캐럿의 24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ETERNAL N5 necklace, 총 0.38캐럿의 25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심플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ETERNAL N5 necklace.



The Etermal Number

가브리엘 샤넬이 가장 사랑했던 숫자 5에서 영감을 받아 그 형태의 아름다움과 하우스의 대담한 정신을 담아낸 컬렉션 N5를 소개한다.

장사범 비디오

클립은 이어링 형태로
0.18캐럿의 18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와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ETERNAL N5 싱글 이어링.



1 팔방을 모양의 펜던트와 숫자 5의 우아한
하모니가 돋보이는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EXTRAIT DE N5 네크리스. 2 총 1.02캐럿의
31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사철 화인
주얼리 애호가들의 독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ETERNAL N5 링.
3 한편에는 숫자 5를, 다른 한편에는 팔방을
모양을 표현해 대조적인 아름다움을 진한다. 총
0.15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5개를 세팅해
우아한 볼륨감이 눈길을 사로잡는 비트윈 핑거링
디자인의 EXTRAIT DE N5 링.



총 0.25캐럿의 라운드 컷 센터
스톤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총 0.20캐럿의 19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ETERNAL N5 링.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센터 스톤으로 세팅한 18K
베이지 골드와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ETERNAL N5 링.



0.18캐럿의 18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베이지 골드와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ETERNAL N5
싱글 이어링. 총 0.15캐럿의 5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볼륨감을
자랑하는 EXTRAIT DE N5 링.

Eternal Love

가장 순수한 반짝임으로 표현한 영원의 징표이자 사랑의 서약을 지키는 완벽한 수호자, 다미아니의 다이아몬드로 만든 브라이덜 컬렉션.

Solitaire Ring

가장 순수한 반짝임을 전달하는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솔리테어 링이다. 다미아니는 가장 아름다운 솔리테어 링을 위해 완벽한 커팅과 색상, 광도를 구현한 다이아몬드를 제작한다. 이렇게 완성된 매종 다미아니의 클래식하고 상징적인 브라이덜 컬렉션의 솔리테어 링. 1백여 년에 걸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솔리테어 링을 다미아니에서 더욱 특별하게 만날 수 있다.

Wedding Band

매종 다미아니는 영원한 사랑의 서약을 상징하는 웨딩 밴드의 전통적 개념을 현대적 주얼리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불륨감 있는 내부 형태와 밴드의 둥근 가장자리를 손가락의 형태와 움직임에 완벽하게 맞도록 고안된 편안한 컷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손가락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최고의 착용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다. 웨딩 밴드는 사랑하는 사람 간의 약속과 서약 같은 가장 중요한 기부와 의미를 지닌다. 그런 만큼 다미아니는 고객의 기호와 요청에 따라 화이트·핑크·옐로 골드와 플래티넘 등 소재부터 작은 다이아몬드 세팅과 다미아니 시그니처 장식, 각인 사인스까지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다미아니 웨딩 밴드 컬렉션과 함께라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 문의 02-515-1924 에터너리 샵



플래티넘 또는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미아니 솔리테어 링으로, 컬렉션명은 유티티 차페로 벨 에포크, 마뉴, 마뉴 플 펌페, 보트올로.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벨 에포크 웨딩 밴드.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미아니 웨딩 밴드.



화이트·핑크·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노이웨어 웨딩 밴드.



플래티넘 또는 핑크·옐로 골드 & 플래티넘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벨 에포크 웨딩 밴드.



passion of infinity

신념을 가진 자를 이길 방도는 없다. 자신의 직감을 바탕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며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컬렉션을 풀어내는 마르코 드 빈첸조(Marco de Vincenzo)가 이끄는 에트로(ETRO)의 네 번째 챕터가 열렸다.

작년 6월, 에트로(ETRO)의 최초 비가족 구성원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면서 이탈리아 패션 하우스는 술렁거렸다. 그 주인공은 마르코 드 빈첸조. 펜디의 액세서리 디자이너를 거쳐 본인의 레이블로 브랜드를 운영해왔던 그는 다양한 경력을 걸쳐 살아 에트로에서의 첫 컬렉션을 재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의 에트로 데뷔작인 2023 S/S 여성 컬렉션. 에트로의 변화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 주면서도 에트로 아카이브 어딘가에서 꺼낸 듯 정제성을 잃지 않은 의상으로 많은 이들에게 극찬받았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네 번째 컬렉션을 끝마쳤다. 바로 2024 S/S 남성 컬렉션이다.

마르코 드 빈첸조는 로마에 있는 유럽 디자인 연구소에서 패션 및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섬유나 패턴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여기에서 가장 디자인부터 액세서리까지 카타리올을 거쳐서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섬세함까지 더해진 것. 이로써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 할 수 있는 빅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의 역할을 갖추게 되었다. 그가 만드는 컬렉션이 완성도가 높으면서도 재미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옷부터 소품까지 빈티지 컬렉션이 그가 의상 하나하나에 작은 포인트와 재미를 더하는 재능이다. 팬데믹 시절 자신의 레이블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작된 그의 업사이클링에 대한 놀라운 관심과 능력은 지금 에트로 컬렉션에도 발휘되고 있다. 테드스톡 실을 업사이클링해 스웨터와 베스트, 두 가지 제품으로 만든 에트로 카인드 니트(Etro Kind Knits) 실용 컬렉션이 이를 증명해준다. 이런 다재다능한 디렉터가 앞으로 선보일 에트로 컬렉션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1 리드미컬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드레이프 스타일의 룩, 2 바닥에 끌리듯 누워있는 핏의 팬츠 스타일, 3 에트로 쇼에서 처음 선보이는 에트로시암로 아이웨어, 4, 6, 10 우회성인 노랑의 프린팅 패턴이 돋보이는 룩, 5 실루엣과 디테일이 남다른 가죽 재킷, 7, 11 새롭고 남성적인, 8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르코 드 빈첸조(Marco de Vincenzo), 9 무수한 실루엣의 룩에 에트로를 더하는 에트로시암로 실루엣.

에트로의 우화, Etroallegories

2024 S/S 맨즈 컬렉션 또한 소재가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다. 바로 에트로알레고리(Etroallegories). 그 시작은 마르코 드 빈첸조가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던 중, 체사레 리피(Cesare Ripa)의 《아이코놀로지(Iconology)》라는 사전 사본을 발견하면서부터다. 이 책은 17세기의 미터, 자질, 부도덕 등을 묘사한 우화적 이미지로 가득했고, 마르코는 이 과거의 심오한 비밀과 은밀한 의미가 가득한 흥미로운 표현에서 영감을 받은 대작으로 형상화했다. 그것이 바로 2024 S/S 맨즈 컬렉션으로 탄생한 것이다. 오래된 사본에서 우연히 발견한 직물 이상의 우화적 의미를 현재의 패션 산업과 연결시킨 그의 능력이 놀라울 뿐. 얼핏 보기에도 다른 사대의 유물처럼 느껴지는 우화지만 어쩌면 거기서 마르코는 현대의 단면을 발견했는지 모른다. 디자인을 하고 그에 따라 의상을 제작해 쇼에서 선보이는 것 역시 어쩌면 이미지 메이킹에 의지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우화적이고 비유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었다. 새로운 에트로 컬렉션은 바로 이러한 의도적이고 직관적이며 비교할 수 없는 사본에서 기원한다. 몸에 거의 닿지 않고 유려하게 흐르는 형태와 리드미컬한 패턴을 가득 믹스 매치한 스타일은 편안함과 동시에 신성함까지 풍기는 것. 낙담한 블레이저부터 버뮤다, 점프수트, 파자한 점퍼, 풋볼 튜는 긴 키디디와 두꺼운 담요로 만든 코트와 조화롭게 어울린다. 더불어 소원(augurio buono), 아름다움(bellezza), 영원(eternità), 정욕(ussúria), 강인함(tenacità)을 표현하는 우화적 이미지를 프린트와 자켓 어가자(에 반짝이는 타치로 기미 해 극적인 느낌을 극대화한다. 반면 하이퍼-벌카-카이즈 알라비 슈즈, 스퀘어 토 셰이프의 돌(doll) 슈즈, 인트로사야 백 같은 액세서리를 통해 연속성과 동시에 재미있는 디테일이 더해져 옷을 감상하는 내내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번 컬렉션이 특별한 이유는 시폴로(Saino)와 피르나시노(Pegaso) 디테일 및 유물들은 새로운 아이웨어 컬렉션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최첨단 실루엣과 독창적인 시그니처 디테일이 특징. 오버사이즈 형태의 대담한 구조와 기하학적인 디테일에 자유와 에-지 및 창의성을 상징하는 페가수스(Pegaso) 디테일을 담았다. 이는 고대 신화의 매력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표현한 에트로스크린(ETROSCREEN) 스타일의 극치를 보여준다. 2024년 1월 정식 출시 예정이며, 2023년 11월에는 새로운 아이웨어 컬렉션의 프리뷰 제품을 에트로 부티크 및 일부 인스타그램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에터너리 샵





(위부터 차례대로) 가벼운 마이크로 원사로 제작한 가죽 밑창과 부드러운 워셔드 스웨이드 소재로 시원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스퀘어드 어반 슬라이드 90만원대 **브루넬로 쿠치넬리**, 문의 02-3479-1804, 오프화이트, 베이지,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따뜻하고 캐주얼한 무드를 지어내는 코트 소재의 슬림은 80만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8,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캐주얼 모티브를 재해석한 디자인이 스포츠 무드와 캐주얼 무드를 강조하는 초경량 코스로 러버 소재의 다들 WARP 신들 1백50만 원 **다들 맨**, 문의 02-3280-0104, 볼륨감 있는 디자인과 반대로 가벼운 착용감을 자랑하며 수조 전체에 FF 모터브 패턴을 더해 세련된 맛이 돋보이는 팬디 클라우드 슬라이드 80만원대 **팬디**, 문의 02-544-1925, 매끈한 디자인이 고급스러움을 배가하며 스트랩을 장식한 밴드와 비블 포인트가 눈길을 끈다. 브라시드 가죽 신들 1백57만원 **프라다**, 문의 02-3443-6047,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H 컷 아웃 장식이 특징이며, 시어링 소재로 재조합된 유근한 멋을 선사하는 이즈미르 슬라이드 1백2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윤지영**

Cool Steps

더욱 쿨하고 편안한 발걸음을 위한 서머 맨 슈즈.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편집장 조지영

enjoy your flight

간편한 휴대성과 빠른 효과로 비행 전후 혹은 항공기 내에서의 뷰티 케어를 도울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리베 세린 스킨프 오일 컨트롤 드라이 샴푸 파우더** 하루 종일 감지 못한 기름진 머리를 보송하게 유지해주는 파우더 향의 드라이 샴푸다. 두피에 직접 도포한 후 1~2분 정도 방치한 다음 미샤하고 가볍게 털어내면 끝. 특수 녹말 혼합물과 카올린 클레이가 유분과 피지를 케어한다. 45g 7만3천원, 문의 1644-4490

샤넬 코코 마드모아젤 헤어 미스트 오랜 시간 비행으로 땀새내고 끈질긴 헤어에 가볍고 상쾌한 향기를 더해줄 헤어 미스트는 필수. 헤어뿐 아니라 비행기 시트나 침구에 뿌리면 오랜 비행에도 은은한 향을 즐기며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다. 35ml 7만9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나스 에프티글로우 리프트 블러쉬 플렉스 비타 비행 전후 간편하게 생기를 더해줄 블러셔. 립이 달린 크리미한 리프트 타입으로 버기도 쉽고 맨 얼굴에도 이질감 없이 녹아들어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컬러와 글로우 연출해준다. 콤팩트한 사이즈로 파우치 안에 쏙 들어가는 것 역시 장점. 7ml 4만5천원, 문의 080-564-7700

최속 더 스프레이 차광용 세트 기존에 있던 더 스프레이의 미니 사이즈 버전으로 재주 관해 수를 담은 100% 천연 탈취제, 300ml 리프트 미니 보틀, 닥스 클리닝 파우치 세트 구성으로 항공기 기준 용량만 담아가고 말 수 있으며, 비행기 좌석이나 담요, 베개 등에 뿌려 향균 효과와 불쾌한 냄새 제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만9천원, 문의 070-4184-1005

이슬 진저 플라이트 비행 시 잠이 잘 안 오거나 심신의 안정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좋은 향의 이슬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생강 뿌리와 진정을 위한 라벤더, 생기를 위한 제라늄을 조화롭게 블렌딩했다. 목이나 손목에 비르면 은은하게 향을 즐길 수 있다. 10ml 3만2천원, 문의 1800-1987

연락 전조 데일리 플랜 엑스클라리트 액체 반입이 어려운 기내에서 사용하기 좋은 파우더형 페이스 클렌저. 물과 섞으면 풍성한 거품이 일어나며,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며도 민감하게 자극한다. 오랜 비행으로 세안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이상맞춤. 80g 4만원, 문의 1644-4490

라 메르 크렘 드 라 메르 건조한 기내에서도 고백없는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모베우가 늘 챙기는 크림. 영양감 있고 풍부한 텍스처가 피부 깊숙이 수분을 전달하며, 건조함을 막아 최악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 세안 후 마스크 팩처럼 도포하면 다음 수면을 위한 내피를 밝히는 피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0ml 29만5천원, 문의 02-6971-3293

아워글래스 베너시 에어브러쉬 컨실러 트러블 사이즈 기내 파우치를 좀 더 콤팩트하게 만들고 싶다면 커다란 쿠션보다 작은 컨실러 하나만 챙겨도 충분하다. 특히 이 제품은 고농축 피그먼트로 소량만 사용해도 얼굴 전체 커버가 가능하며 잡티와 결점을 완벽히 커버한다. 1.3ml 2만1천원, 문의 1644-4490

자방시 뷰티 프리즐 리브르 미니 웨이드 01 무수분 파스텔 비행기에서 내린 뒤 바로 일정을 소화해야 할 때, 이 파우더 하나만 챙길 것. 맨 얼굴에 사용하면 카메라 플래시를 쬐는 듯 매끈하고 화사한 피부로 보정해준다. 탈탈함이나 건조함 없이 투명하게 피부를 표현해 건조한 기내에서의 사용도 합적. 4g 4만7천원, 문의 080-801-9500 에디터 **성정민**

editor's Pick

더위에 무너지지 않는 메이크업을 원한다면 여기, 솔루션이 있다. photographed by kim sa yun

(왼쪽 윗쪽 시계 방향으로) **사티에이즈 뷰티 벨벳 블라드 림프 09 리브** 메드한 무광 텍스처에 밤에서 느껴지는 수분감을 더했다. 동그랗고 귀여운 돌 형태의 세이 프가 입술 위에서 매끄럽게 발라는데, 발색력이 정말 좋아 한번 바른 건 평생 지속된다. 케이스도 작고 가벼워 들고 다니기 좋다. 3g 52만천원. 문의 02-591-5218. *by 에디터 정리문*

다이트르 2023 슬로우 썬어 컬렉션 시트르넬 캔들 이 캔들에서는 햇빛이 쏟아져서 어 느덧 해가 지는 아름다운 그리스 신화그림의 레온 황을 머금은 시트르넬 바다 냄새가 난다. 싱콤한 레몬그라스 향을 베이스로 꽃 향과 그린 노트를 살짝 곁들여 은은하게 향이 퍼져 오래 맡아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190g 928천원. 문의 02-3479-6049. *by 인턴 에디터 신정림*

메이크업 포에버 아티스트 블러쉬 B220 조이를 핑크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피부에 유분이 많지 않거나 화장이 들뜨는 고민을 타피해준 아이젠. 피부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고밀착 스킨 퓨징 텍스처로 스킨과 잘 어울려 발라도 생기는 피부를 완화해준다. 무엇보다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치지 않는 걸쭉한 블러쉬가 돋보인다. 4g 42만천원. 문의 080-514-8942. *by 에디터 윤자경*

리부르즈 린넨 워터 하늬기 장미향엔 빨라져 햇빛에 바싹 말리지 못해서 나는 끈끈한 냄새가 아니라 신장 쓰이는지, 리부르즈에서 디퓨저, 캔들 등으로 판매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하늬기 향을 담은 이 방향제는 웃은 물뿐이고 카본, 소파 등 때때로 사용될 수 있는데, 상당히 은은한 향기로 입상을 채워준다. 1,000ml 599천원. 문의 1644-4430. *by 에디터 정리문*

다들 뷰티 뉴 디올스 아이코너 오버립 080 볼륨 무더운 여름날에도 쉽게 차지 않는 평평한 마스크가 필요했다. 볼륨과 컬러를 곁도는 물론, 수려하고 주출물이 들어 있어 속눈썹에 영양까지 더해준다. 번나질 정도 지속되고, 부드러운 재질로 브러시 털로 바르기가 편했다. 디올 로고를 각인한 새로운 디자인까지 마음에 쏙 든다. 6g 52만천원. 문의 080-342-9500. *by 인턴 에디터 신정림*

아베다 컬러 컨트롤™ 리브-인 트리트먼트 리치 헤어 컬러 유지 및 모발 강화에 집중했다. 열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이 두 가지에 특화된 제품을 찾아 만나 만난 제품. 바이오 발효 아미노산인 아라닌과 시루부에서 추출한 리투신이 들어 있어 모발이 펄스보다 탄력 있고 윤기가 났다. 100ml 42만천원. 문의 02-3440-2905. *by 인턴 에디터 신정림*

아슬 나치 바수 이소 매직에 가면 나는 황을 왕실에서도 즐기고 살던 때를 선편해 아 할 제품. 특유의 우디한 허브 이노이 향으로 샤워 시간을 단순히 힐링 타임으로 만들어준다. 별다른 포장 없는 형태로 환경까지 생소한 착한 바수. 이오에다 좀 더 크리미한 기쁨으로 건조함을 방지해주는 리프미시 바수과 피부 각질 제거제 도음을 주는 플리시 바수도 사용을 권해준다. 150g 293천원. 문의 1800-1987. *by 에디터 정리문*

바스니유 뷰티 노르웨이 푸레스달 내추럴 워터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노르웨이 푸레스달의 물을 담았다. 참기름 잎이 수인한 청정수리 이슬을 머금은 듯 깨끗한 물맛이 느껴진다. 아슬과 친환경 종이 패키지를 사용해 미세 플라스틱 배출도 줄였다. 정제수인산 330ml 3천원. 문의 1644-3456. *by 인턴 에디터 신정림*

비디치치 스킨케어 클리닝 미스트 피피와 핏으로 밝혀지기 상상인 요즘, 어떤 제품을 발라도 피부에서 갈도는 느낌이 들 뿐이었다. 피부 정화가 시급할 때 만난 이 클리닝 미스트는 밤하늘에 자를 담은 마-쿠이강 클리닝와 밤하늘 스킨케어 비블로 비르 자마자 시원하게 피부 온도를 낮춰주어 모공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듯 특특 타지는 사용감이 좋았다. 1회 사용 분량으로 하루 사용 가능하여 있어 위생적으로도 안심되는 것은 물론, 휴대용이나 여행용으로도 안심할듯. 5ml X 20매 42만천원. 문의 1644-4430. *by 에디터 정리문*

샤세이도 알티문 퓨처 파워 샷 즐겨 사용하는 샤세이도의 시그니처 제품이자 스테디 셀러인 알티문 퓨처 파워 샷의 네 가지 핵심 성분을 15배 농축한 제품이다. 단 하루 사용했을 뿐인데 더유와 피부에 자친 피부 컨디션이 확 올라간 듯한 느낌. 여간의 정성 이 있는 영양원 가득한 텍스처로 피부에 비르민 끈적임 없이 싹 흡수된다. 스페셜한 피부 관리가 필요할 때 주 2회 사용으로 2분만에 에너지를 다채로운 효과를 줄 수 있다. 15ml 102만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정리문*

알파스 프로 콜라겐 바이오리미티 아이 크림 드르를 원하는 물론이고 자고 일어나 있을 때 눈가 부기를 즉각적으로 진정시키는 것이 마음에 쏙 든다. 구성 성분은 깊은 바닷속에서 얻은 민물물, 산사-무 꽃과 재민 잎, 일본 사할리 등 자연에서 얻은 추출물, 텍스처 또한 가볍고 싹뜻에 여름에 제재된다. 15ml 132만천원. 문의 02-3213-4175. *by 에디터 정리문*

샤넬 레 기틀르 은브르 비앙스 288 베틀루 크리스탈 평소 더유리 메이크업부터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색조 화장을 즐기는 나. 생생한 핑크 컬러와 차분함을 더하는 토프 컬러, 영감을 줄 수 있는 오일 오브 핑크 컬러가 비르 아낌에 속속 발라도 걸쭉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또 잔꽃향이 도는 스카이 블루로 컬러는 눈 앞마리에 포인트를 주기에 제재. 2g 92만천원. 문의 080-905-9638. www.chanel.com. *by 에디터 윤자경*

구찌 블롬 오드 퍼플 인텐스 오렌지 블라썸 애플루르로 시작되는 토프 노트가 마치 꽃이 만발한 정원을 거니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이어 재스민 섹바, 투베르즈, 랑크 크피퍼 같은 플로럴 계열의 향이 깊은 느낌을 선사한다. 지속력도 꽤 긴 편. 은 은하게 풍기는 향덕에 기분까지 힐링 될 100ml 26만7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윤자경*



SHOWROOM



스위스퍼펙션 RS-28 라인 리미티드 에디션 스위스퍼펙션은 올해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RS-28 셀룰라 리주베네이션 선 세럼 & RS-28 리주베네이션 크림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였다. 세럼과 크림으로 구성된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은 피부 분연의 28일 재생 주기를 활성화해 마백과 더불어 탄력 있는 광채 피부를 선사한다. 문의 1644-4490

하는 성분인 당젤라스터를 통해 혈관 노화까지 케어하며 맑고 투명한 피부를 선사한다. 무더운 여름날 차차하고 노화된 피부로 고민이라면, 플라 화이트샷 CXS N이 제재이다. 문의 02-772-3265

자랑시 뷰티 로즈 퍼펙트 자랑사에서 로즈 퍼펙트의 새로운 버전인 로즈 퍼펙트를 출시한다. 스킨케어 성분은 함유한 부드러운 미를 제형으로 선보이는 이번 신제품은 핑크 페퍼 오일과 로즈 오일, 시아버터로 보습과 영양을 선사해 건강한 입술로 케어할 수 있다. 문의 080-801-9500



펜탈라코스 포스트 앤 레메디 영국 로열 나치 퍼퓸 하우스 펜탈라코스에서 새로운 퍼퓸 컬렉션, 포스트 앤 레메디를 선보였다. 잊힌 제조법이라는 테마로 탄생한 이번 컬렉션은 사랑, 평온함, 자신감, 유쾌함, 활기로 5가지 감정을 다채로운 향으로 재해석했다. 문의 02-3443-1805



플라 화이트샷 CXS N 마백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는 플라에서 마백 톤인 에센스의 완전체, 화이트샷 CXS N을 선보인다. 혈관에 생기는 리포푸신 색소를 분해

BEAUTY



스피로보스키 아이리미아 바터블리이 컬렉션 출시 스피로보스키에서 나비의 생동감과 크리스탈의 영롱함을 담은 아이리미아 바터블리이 컬렉션을 선보인다. 토퍼즈와 크리스탈로 완벽히 대중을 구한 이번 신제품은 핀드트, 브로치, 브레이슬릿, 이어링으로 구성되어, 전곡 스와 로보스키 매장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문의 1522-9065

럼, 블루 텍스처 등 총 57가지 브랜드 시그니처 컬러로 스타일의 폭을 넓혔다. 뛰어난 내구성과 초경량성이 포인트인 투미 19 디그리 컬렉션을 바탕으로 준비해 보자. 문의 02-539-8160

센트루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3종 출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멀티비타민 브랜드 센트루에서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3종을 출시한다. 장 건강과 체지방 감소를 동시에 챙겨주는 슬림 케어,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력을 생장하는 면역 케어, 수면 건강을 위한 나이트 케어까지, 총 3종으로 선보인다. 문의 080-901-4100



LIFESTYLE

투미 19 디그리 컬렉션 뉴 컬러 출시 퍼포먼스 럭셔리 브랜드 투미가 비앙스 시즌을 맞아 새로운 컬러의 19 디그리 컬렉션을 공개했다. 한티 그린, 레드, 블라시, 핑플



사헬 화인 주얼리 사헬 화인 주얼리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의 린더의 홀에서 열린 사헬 하이 주얼리 전시 행사를 통해 2023 트윙드 드 사헬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트윙드 직조의 장수를 담아낸 64개의 새로운 하이 주얼리를 소개하며, 7월 27일 아시아 지역을 대표해 첫 번째로 서울에서 선보였다. 문의 080-805-9628. chanel.com

다이아리 벨 에코크 유니버시티 팝업 스토어 1백여 년 역사의 이탈리아 하이 주얼리 브랜드 다이아리 가 지난 6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팝업 스토어를 처음 공개하며 벨 에코크 유니버시티를 블랙 & 화이트로 구현해 이목을 끌었다. 벨 에코크 유니버시티 팝업 스토어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을 시작으로 대구점에 이어 9월 9일까지 선보였다. 문의 02-515-1924

블랑팡 오스테이 캠페인 블랑팡이 빈트리의 클럼 앤스 파 서울 오아시스에서 8월 31일까지 오스테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당 환경 보존 및 보호를 위해 탄생한 블랑팡 오션 케이트먼트(BOC)의 수중 촬영 이미지를 활용한 알베르티 레밍, 해양 탐험 비디오 상영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02-3467-8426

프레드 해피 블루 슈에트 컬렉션 런칭 프레드가 태양 아래 빛나는 바다의 색깔을 모아 물결을 새로운 컬렉션 해피 블루 슈에트를 공개했다. 매종 대표 컬렉션인 프리티 무안에서 블루 컬러와 다이아몬드로 디자인된 맥시 한티크 네크리스와 푸른 바다를 담은 새로운 카운팅 알베르티 레밍, 해양 탐험 비디오 상영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02-514-3721

쇼메 빙동 광장 12번지에서 함께한 차운우 르 자랑 드 쇼메 파리 빙동 광장 12번지에 위치한 쇼메 매종 호텔 파티룸에서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 르 자랑 드 쇼메를 선보였다. 매종의 컬렉션 속 화려하고 메 하이 주얼리 루크의 일환으로 가수 겸 배우 차운우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의 02-3442-3359

프렐로트 2023 오드 투 밀란 하이 주얼리 컬렉션 포엘리토가 하이 주얼리 컬렉션 오드 투 밀란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은 말라노 총재 유작부터 도심 속 현대 건축 건물, 그리고 라 스킴라 극장의 독특한 디자인과 장엄함이 느껴지는 두오모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문의 02-6905-3342

에트로 2024 S/S 아이웨어 컬렉션에서 사모로와 함께한 **산로르노스** 공개 에트로가 이탈리아 글로벌 아이웨어 브랜드 사모로와 만나 2024 S/S 아이웨어 컬렉션을 선보였다. 오버사이즈의 볼드한 테라 시그니처 로고인 페가수스 디테일을 새겨 고대 신화를 현대적 스타일로 재해석한 에트로 스크린 스타일링을 담았다. 문의 02-3446-1969



알렉산드라 맥퀸 2023 F/W 프리 컬렉션 주얼리 호보 백 알렉산드라 맥퀸 하우스 시그니처 너클라인 중 하나인 주얼리 호보 백을 2023 F/W 프리 컬렉션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공개했다. 오버사이즈의 볼드한 테라 시그니처 로고인 페가수스 디테일을 새겨 고대 신화를 현대적 스타일로 재해석한 에트로 스크린 스타일링을 담았다. 문의 02-6105-2226

로로피아나 2023 F/W 컬렉션 로로피아나 소재 생선자민 페루, 뉴질랜드, 호주, 몽골에서의 영감을 담은 2023 F/W 컬렉션을 선보인다. 캐시미어, 실크, 라틴 및 비쿠냐 울 등 최고급 소재를 사용했으며 브라운, 오렌지, 베이지 컬러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색감의 룩뿐만 아니라 스타일링이한 액세서리도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02-6200-7799



FASHION

JEWEL & WATCH



BVLGARI
ROMA

SERPENTI
75 YEARS OF INFINITE TALES